

명사칼럼

사도(師道)의 의미를 생각하며



양 성 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064-710-2114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의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해녀였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해녀들은 왜 큼지막한 *태왁을 몸에 두르고 날마다 바다로 몸을 던지고 있을까.

*태왁 : 해녀들이 바다작업을 할 때 수면위로 올라와 몸을 의지하는 속이 빈 박. 태왁 밑에 달려있는 망사라는 채취한 해산물을 넣을때 쓰인다.

삼삼오오 불럭에 모여 몸을 녹이고 있던 젊은 해녀들에게 먼저 질문을 건넸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지식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 하는 거다. 제주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이번엔 자식을 다 키워서 손자까지 본 해녀에게 물어 보았다. 그런데 웬걸, 돌아오는 답변이 또 걸작이다. "늙어가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번리려고 하는 거다. 더 늙으면 그냥 나대로 번어놓은 거 넘고살려고..." 그렇다. 이것이 제주의 어머니다. 한 평생을 오로지 자식을 뒷바라지에 바쳐야 했던 우리의 어머니.

이렇듯 오직 자식을 위해 한 평생을 사는 부모의 마음에서 사도(師道)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굳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예부터 한 사람의 삶에 있어 스승은 바움의 어버이로 그 가르

침은 제자들의 가슴속에 내리내리 살아 숨 쉰다. 공교육이 위기라고 한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반대급부로 나날이 치솟는 사교육비 탓에 부모들의 등골은 점점 휘어만 가고, 자식이 아니라 원수 같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오늘을 사는 교육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면 이들 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어려운 건 분명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 몰라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튼튼한 내로 교육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재촉도 해보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나라에 교사나 교수는 많은데 교육지는 드물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드물다는 말이다. 옛말에도 '경사(經師)는 만나기 쉽지만 인사(人師)는 만나기 힘들다'고 했다. 경사는 경서(經書), 요새 말로 교과서나 가르치고 지식이나 전달하는 직업적인 선생이고, 인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 곧 교육자를 의미한다.

스승에겐 스승의 길인 사도(師道)가 있다. 사도란 스승이 길어야 할 길이요, 스승이 간직해야 할 정신이요, 스승이 지녀야 할 자세다. 사도의 으뜸은 우선 교권의 확립이다. 가르치는 데 필요한 권위가 바로서야

하며, 교육은 권위 없이는 불가능하다.

권위가 없으면 제자가 스승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스승의 권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식과 학문의 권위요, 또 하나는 정신과 인격의 권위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스승의 권위는 바로서고, 학생은 그 스승을 자연스럽게 따른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이 어디 그러한가. 학교보다는 오히려 학원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인세부터인가 당연시 되고 있다. 이제 교사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공교육은 절대로 바로설 수 없고, 교사는 그저 안정된 직장에 불과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지도 모른다.

"교육하는 자는 교육받는 자보다 더 많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미국의 교육자 스텐리 홀의 얘기를 진정된 스승이 되려고 하는 자는 단 하루도 잊어선 안 된다. 지식과 학문의 권위 못지않게 정신과 인격의 권위가 중요하다.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 스승인 것이며, 무릇 공교육이 바로서는 첨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자의 삶에 깊은 애정을 지니지 않고 교육을 얘기할 수는 없다. 제자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 때론 지엄한 아버지가 되고, 또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가 되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스승이 지녀야 할 덕목이다.

일찍이 맹자(孟子)는 인생삼락(人生三樂)으로 "부모가 다 살아 계시고 형제가 부끄러운 것이 첫째의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을 내할 때 떳떳한 것이 둘째의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모아 가르치는 것이 셋째의 즐거움"이라고 했다.

이 말처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 중 가장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바로 젊은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다. 가르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을 바로잡은 일이요, 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일이요, 나아가 한 나라의 인재를 키워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걸맞은 분권화를 실현하고, 주민의 대표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나 역시 지난 2007년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에 선출됐고, 그만큼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형자율학교인 i-좋은학교를 특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i-좋은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각종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원어던 보조교사 배치가 확대되고,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운영비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교육과정은 국어·사회·도덕 교과를 제외하고 총 수업시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세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익숙한 것만을 되풀이하다간 인세 좌초될지 모르는 게 글로벌사회의 뼈아픈 현실이다. 그것은 교사도, 학생도, 학교도 다 마찬가지이다. i-좋은학교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과감히 시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미 있는 교육실험이다.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 이처럼 새로운 시도들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보다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생님,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아나가는 학생,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으는 학부모, 이 네 가지 중심축의 완벽한 하모니이다.

이것만이 내가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할 빛이며, 한 평생 교육의 길을 걸어 온 교육자로서의 꿈이다.

나는 교육이야말로 '행복한 삶,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열쇠라고 믿는다. 즉,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만이 세주가 대한민국 1%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키워드이다.

기술표준 2009.5

